

TDB 경기동향조사(전국) — 2013년 2월 조사 —

2013년 3월 5일
 주식회사 테이코쿠 데이터뱅크 산업조사부
<http://www.tdb.co.jp/>
 경기동향조사전용 HP <http://www.tdb-di.com/>

경기 DI는 39.8, 전월 대비 1.8 포인트 증가로 3개월 연속 개선

~ 다양한 업종에서 개선되고 있어, 국내경기는 회복되고 있다 ~

(조사대상 2 만 3,051 개사, 유효회답 1 만 338 개사, 회답률 44.8%, 조사개시 2002년 5월)

< 2013년 2월 동향 : 회복 >

2013년 2월의 경기동향지수(경기 DI : 0~100, 50 이 판단 분기점)는 전월 대비 1.8 포인트 증가한 39.8로 3개월 연속 개선되었다.

아베 정권 발족 이후, 엔화하락 · 주가상승이 지속되는 가운데, 대형보정예산의 성립과 금융완화정책 지속이 결정되고, 설비투자 등 실수요도 보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중국의 대기오염 확대는, 국내외에서 일본의 환경관련기술에 대한 수요를 올릴 기대도 보였다. 이러한 외부요인을 배경으로, 『건설』과 『부동산』, 『제조』, 『소매』 등 10개 업계, 9개 업계, 51개 업종 중 40개 업종이 개선되었다. (전월 : 47개 업종)

다양한 업종에서 개선의 경향이 보여, 국내경기는 회복되고 있다.

『제조』 엔화하락과 인프라투자 기대 등으로 3개월 연속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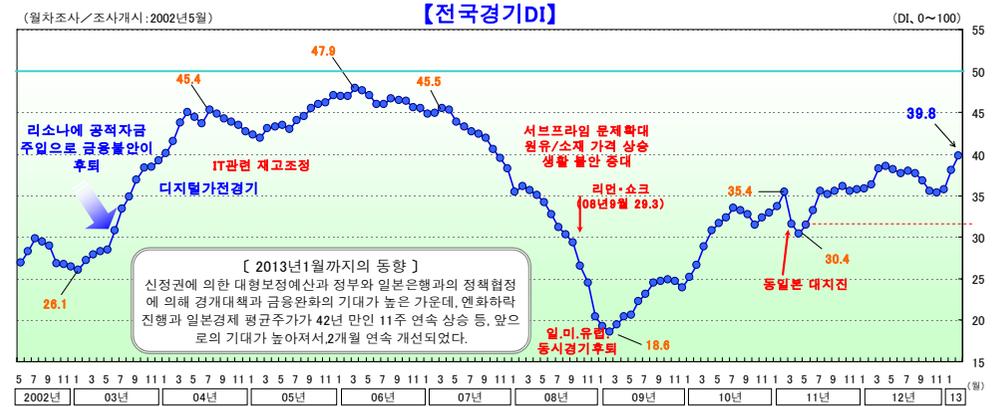
『제조』는 지진재해부흥과 인프라투자 기운이 높아, 「철강 · 비철금속 · 광업」이 3개월 연속으로 개선되고, 엔화하락의 지속으로 수출이 회복기조로 보이는 「기계제조」와 「수송용기구 · 기구제조」도 2개월 연속 개선이 될 정도로, 전체 12개 업종 중 11개 업종이 개선되었다.

『부동산』 과거 최대의 개선폭

소비세 인상 전의 급격한 수요와 오피스 시장에서 미입주자 저하, 부흥수요에 의해 재해지역에서의 임대물건의 수요 등, 『부동산』(45.7)은 전월 대비 4.8 포인트 증가되어 2002년 5월 조사개시 이후 최대의 개선폭이 되었다. 특히, 『토호쿠』(동 6.5 포인트 증가), 『키타칸토』(동 9.7 포인트 증가), 『미나마칸토』(동 5.3 포인트 증가) 등 동일본에서 눈에 띄게 개선되었다.

전체 10개 지역이 2개월 연속 나란히 개선

『토카이』와 『토호쿠』 등 전체 10개 지역이 나란히 개선되었다. 2개월 연속으로 전 지역이 개선된 것은, 2010년 5월(5개월 연속) 이래 2년 9개월 만이다. 『토카이』는 엔화하락으로 인해 자동차 관련과 설비투자 관련이 상승하였다. 그리고 『제조』와 『부동산』이 활발했던 『키타칸토』도 수준은 전국에서 최저지만, 3개월 연속 개선되었다.



< 이후 전망 : 완만한 회복 >

부흥수요의 지속과 공동투자의 증가, 금융완화 등 디플레이션 완화와 경기회복을 향한 경제정책이 많이 내세워져서, 기업마인드와 소비마인드의 개선기조의 전환이 기대된다. 그리고 미국의 경제환경의 개선과 함께 일본의 수출회복이 기대되는 것과 함께, 엔화하락으로 인해 그 움직임이 가속 될 가능성이 있다. 게다가, 올해 하반기에는 소비세 인상 전의 갑작스런 수요로 인해 경제성장의 페이스가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엔화하락의 진행은 원자재와 연료비 등의 수입가격의 상승이 우려된다. 특히, 전력과 가스 등 인프라부문의 공공요금인상은 기업활동에 있어서 시세하락의 압력이 된다.

이후에는 많은 호재요소가 기대되기 때문에, 경기예측 DI의 「1개월 후」, 「3개월 후」, 「6개월 후」에는 더욱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수입원가 상승시점부터 기업매출의 증대와 임금 상승까지는 타임그래프가 존재하여, 기업은 내부 유보를 쌓을 가능성도 있다. 국내경기는, 마인드 전환이 선행되고 있는 가운데, 완만하게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경기DI	2012년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경기DI	36.3	38.3	38.5	38.2	37.6	37.9	37.7	36.8	35.5
전월대비	0.4	2.0	0.2	▲ 0.3	▲ 0.6	0.3	▲ 0.2	▲ 0.9	▲ 1.3
경기DI	2012년11월	12월	2013년1월	2월	경기예측DI	1개월 후	3개월 후	6개월 후	1년 후
경기DI	35.3	35.7	38.0	39.8	41.2	42.7	44.5	45.4	
전월대비	▲ 0.2	0.4	2.3	1.8	2013년2월대비	1.4	2.9	4.7	5.6

※1: 색상이 없는 부분은 개선, 황색은 보합, 청색은 악화를 나타냄
 ※2: 경기예측DI는 ARIMA모델에 경제통계를 더한 structural ARIMA모델로 분석

업계별 : 전체 10개 업계 중 9개 업계 개선

· 『건설』 『부동산』 『제조』 『소매』 등, 전체 10개 업계 중 9개 업계가 개선되었다.

· 과거 최대 개선 폭이었던 『부동산』 외에, 『건설』 과 『제조』 등도 회복수요와 엔화하락의 영향을 받아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는 등 10개 업계 중 9개 업계가 개선되었다. 그리고 일중관계의 개선을 향한 움직임과 구 정월 수요, 대기오염관련 특수수요가 나타난 「중국진출」 (39.2)기업의 영향은 전월 대비 1.7 포인트 증가하여, 3개월 연속 개선되었다.

· 『건설』 (43.8) ... 전월 대비 1.9 포인트 증가. 『토호쿠』 (55.2, 동 1.6 포인트 증가)이 2개월 연속 개선된 것 외에, 『미나미칸토』 (44.8, 동 1.2 포인트 증가, 4개월 연속 개선), 『토카이』 (42.3, 동 2.4 포인트 증가, 5개월 연속 개선), 『킨키』 (38.3, 동 0.6 포인트 증가, 2개월 연속 개선)의 3대 도시권도 개선 되었다. 연말을 향한 분주함과 동시에, 부흥수요와 설비투자의 증가, 공공투자 기대의 예측으로 전체에서도 2개월 연속 개선되었다.

· 『부동산』 (45.7) ... 동 4.8 포인트 증가. 소비세 인상 전의 급격한 수요가 보여지는 것 외에, 오피스빌딩의 미입주자의 저하가 이어지는 것과 동시에 수요시기라고도 하여, 3개월 연속으로 개선되어, 개선의 폭도 과거 최대의 4.8 포인트로 10개 업계 중 최대로 되었다.

· 『제조』 (37.4) ... 동 2.1 포인트 증가. 재해부흥과 아베 정권에 의한 인프라투자 기운이 높아져 「철강·비철금속·광업」 (37.6, 동 2.1 포인트 증가)이 3개월 연속 개선되었다. 그리고 지속되는 엔화하락으로 수출이 회복기조로 되고 있는 「기계제조」 (39.2, 동 2.9 포인트 증가), 「운송용기계·기구제조」 (41.2, 동 7.0 포인트 증가)도 2개월 연속 개선되는 등 『제조』는 전체 12개 업종 중 11개 업종이 개선 되었다.

· 『소매』 (38.4) ... 동 2.1 포인트 증가. 경기회복의 기대로 디플레이션 심리가 누그러지고 있는 소비자의 구매의욕 고조와, 연말수요도 늘어나서 「식음료품소매」 (38.8, 동 5.9 포인트 증가), 「가구류소매」 (44.4, 동 6.9 포인트 증가), 「자동차·동부품소매」 (42.9, 동 1.7 포인트 증가)등이 크게 개선되어, 『소매』는 전체 9개 업종 중 6개 업종이 개선되었다.

→ 최고의 『부동산』 과 최저의 『농·림·수산』 과의 격차 (8.9 포인트, 『그외』 를 제외한)는 전월 대비 1.2 포인트 증가하여 2개월 연속 확대되었다.

	12년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3년 1월	2월	전월 대비	재해 전 (2011년2월) 과 비교	
농·림·수산	35.3	35.8	36.4	35.0	34.8	34.5	35.8	35.2	33.3	33.7	34.9	36.0	36.8	0.8	▲ 0.6	
금융	35.6	38.6	38.8	37.6	38.0	37.7	37.7	37.5	35.7	36.1	36.2	41.3	42.4	1.1	▲ 8.2	
건설	34.6	35.7	35.7	35.5	36.2	37.2	38.0	38.1	38.6	39.0	38.7	41.9	43.8	1.9	▲ 15.7	
부동산	36.5	38.6	38.2	37.9	38.2	39.2	38.5	38.3	36.7	35.7	37.0	40.9	45.7	4.8	▲ 9.7	
제조	식품료품·서로제조	33.8	36.7	36.7	36.6	35.2	34.5	33.8	34.7	33.4	32.7	33.4	34.5	35.6	1.1	▲ 2.3
	섬유·섬유제품·장신구제조	38.0	38.9	39.9	39.4	37.9	37.9	35.9	36.0	33.7	33.1	35.6	36.9	37.3	0.4	▲ 1.2
	건축·가구·요업·토석제품제조	34.0	36.0	35.9	34.9	34.5	36.4	35.6	37.9	36.4	37.0	38.2	38.9	40.3	1.4	▲ 7.0
	철강·중이·중이·비철금속	31.9	34.6	36.5	34.2	34.2	33.6	34.7	32.7	30.2	30.8	31.1	33.3	33.0	▲ 0.3	▲ 0.2
	화학·인쇄	28.5	31.8	30.8	30.5	29.3	28.5	29.6	28.6	29.1	29.2	28.3	29.6	31.4	1.8	▲ 4.2
	화학제품	37.2	39.1	39.3	39.7	39.7	39.2	39.2	36.4	35.0	33.3	34.1	36.4	38.0	1.6	▲ 3.5
	철강·비철금속·광업	37.4	39.2	39.2	38.4	37.7	38.0	37.2	35.6	32.1	31.9	32.6	35.5	37.6	2.1	▲ 1.3
	기계제조	39.9	42.4	42.4	41.3	39.3	38.6	37.8	36.4	34.0	33.4	32.7	36.3	39.2	2.9	▲ 3.8
	전자기계제조	36.7	38.7	38.2	38.7	37.6	38.2	37.2	34.8	32.6	31.8	32.8	35.8	38.2	2.4	▲ 3.4
	운송용기계·기구제조	42.8	47.2	48.0	48.2	44.9	44.4	43.1	40.5	33.3	32.8	32.6	34.2	41.2	7.0	▲ 2.4
	정밀기계·의료기계·기구제조	39.3	40.7	38.5	37.1	39.5	39.7	39.4	36.2	33.5	32.5	32.4	33.6	36.5	2.9	▲ 8.5
	기타 제조	29.9	33.0	33.0	33.7	30.8	33.5	32.1	32.2	29.2	30.8	31.0	31.3	34.8	3.5	▲ 4.4
	전체	36.2	38.5	38.4	38.0	37.0	37.0	36.5	35.4	33.1	32.6	33.1	35.3	37.4	2.1	▲ 0.4
도매	식품료품도매	33.5	36.1	36.0	36.8	36.0	36.2	35.2	34.1	32.4	33.5	33.9	34.6	35.3	0.7	▲ 1.8
	섬유·섬유제품·장신구도매	33.3	34.4	37.1	37.2	34.2	33.8	34.4	31.8	32.0	32.4	34.3	34.7	34.6	▲ 0.1	▲ 3.4
	건축·가구·요업·토석제품도매	35.1	36.1	35.9	35.4	35.3	36.9	37.6	37.3	38.3	39.3	39.9	42.2	43.5	1.3	▲ 11.4
	중이류·문구·서적도매	28.9	34.0	35.2	32.6	32.8	32.2	30.9	32.8	28.0	30.2	31.7	31.8	32.3	0.5	▲ 1.0
	화학도매	36.5	38.7	38.9	39.1	38.0	38.5	37.6	36.7	35.6	35.1	34.6	35.9	36.1	0.2	▲ 2.7
	생활자필도매	37.2	33.3	38.7	36.7	32.2	29.0	35.1	27.0	22.4	30.1	32.1	41.9	48.8	6.9	▲ 6.5
	철강·비철금속·광업제품도매	36.1	38.2	38.7	35.9	35.7	35.2	35.7	33.6	32.6	31.6	34.0	37.3	38.2	0.9	▲ 1.1
	기계·기구도매	37.7	40.1	40.3	38.7	38.8	38.8	37.9	36.9	34.6	33.7	34.1	36.8	38.8	2.0	▲ 0.2
	기타 도매	35.0	35.7	36.6	37.6	36.1	36.0	35.5	34.1	32.8	32.2	34.0	35.3	31.3	1.3	▲ 0.8
	전체	35.6	37.6	38.1	37.4	36.7	36.8	36.4	35.3	33.9	33.9	34.5	36.5	37.7	1.2	▲ 1.9
소매	식품료품소매	34.5	37.3	38.2	36.4	38.0	35.5	37.2	36.7	33.1	34.7	30.6	32.9	38.8	5.9	▲ 5.0
	섬유·섬유제품·장신구소매	34.8	38.0	36.5	40.7	35.6	34.2	34.0	32.2	32.9	35.5	32.9	34.6	34.8	0.2	▲ 0.3
	의약품·의료장비소매	49.2	45.3	47.9	46.7	43.1	45.3	45.8	43.8	42.3	44.4	47.7	49.4	45.7	▲ 3.7	▲ 3.7
	가구류소매	37.5	39.6	38.5	40.0	36.5	42.4	39.3	36.1	32.1	34.7	38.9	37.5	44.4	6.9	▲ 4.7
	가전·정보기구소매	38.8	40.9	38.2	42.1	38.2	38.9	41.1	40.4	33.8	33.3	34.1	39.5	38.7	▲ 0.8	▲ 0.1
	자동차·동부품소매	48.2	51.5	46.7	45.5	46.6	46.0	40.8	41.5	36.9	31.5	32.1	41.2	42.9	1.7	▲ 11.5
	전용상품소매	33.3	32.3	34.7	35.0	34.9	35.3	33.6	33.0	32.4	32.7	33.0	32.7	35.1	2.4	▲ 3.7
	직용상품소매	37.7	39.7	41.2	39.1	36.7	39.7	37.1	36.3	35.8	35.3	35.5	38.4	40.5	2.1	▲ 4.4
	기타 소매	44.4	30.0	33.3	25.0	30.6	46.7	47.6	36.1	33.3	33.3	36.7	36.7	31.0	▲ 5.7	▲ 4.3
	전체	37.5	38.5	38.9	39.0	38.1	38.3	37.3	36.4	34.2	34.2	34.0	36.3	38.4	2.1	▲ 4.3
운수·창고	36.5	38.7	39.8	39.5	38.1	39.2	39.5	37.6	36.7	35.3	36.9	38.0	39.5	1.5	▲ 2.9	
서비스	음식점	35.0	39.4	37.1	36.5	40.6	39.6	41.7	39.6	36.0	32.4	35.4	35.7	37.8	2.1	▲ 4.6
	전기통신	51.4	47.6	47.2	51.5	52.1	47.0	53.0	50.0	45.2	48.7	48.7	53.0	▲ 0.8	▲ 0.6	
	전기·가스·수도·열공급	42.9	41.7	43.8	47.9	45.8	40.0	35.4	41.7	37.0	42.6	37.5	43.8	45.8	2.0	▲ 0.0
	리스·임대	41.1	43.3	40.9	46.1	43.6	44.2	43.6	43.8	43.3	43.7	45.2	45.3	48.4	3.1	▲ 13.4
	공연·호텔	29.8	38.9	41.5	41.4	41.7	42.4	42.2	41.7	38.1	40.0	37.2	38.4	40.1	1.7	▲ 12.0
	오락서비스	32.8	35.9	38.5	38.1	35.5	33.3	36.1	35.0	37.4	36.2	36.7	38.5	38.5	0.0	▲ 6.3
	방송	40.6	40.7	46.1	43.1	45.1	39.2	40.2	41.2	38.2	40.6	38.5	41.7	38.7	▲ 3.9	▲ 3.3
	멘テナンス·경비·검사	37.0	38.2	37.0	37.8	39.4	38.1	38.9	39.7	37.7	38.4	37.6	40.7	44.0	3.3	▲ 6.7
	광고관련	35.1	36.6	37.4	38.3	37.2	37.3	36.1	35.9	35.1	34.7	34.5	35.4	38.9	3.5	▲ 8.1
	정보서비스	41.8	43.1	43.7	43.3	43.5	43.9	43.7	42.5	42.2	42.8	45.2	45.2	47.3	2.1	▲ 7.9
	인재파견·소개	49.1	48.0	52.0	51.1	51.9	49.2	50.0	48.8	46.6	42.8	44.9	44.7	48.7	4.0	▲ 8.0
	전문서비스	38.2	41.7	40.6	41.6	40.0	41.2	41.6	41.1	40.5	40.4	41.1	44.3	46.9	2.6	▲ 12.3
	의료·복지·보건위생	41.2	42.6	44.7	44.0	42.4	43.5	43.8	43.4	41.8	41.1	40.8	45.3	45.7	0.4	▲ 8.9
교육서비스	44.2	43.2	43.8	42.3	38.2	41.0	43.2	39.3	42.3	40.1	38.3	46.8	46.8	0.0	▲ 4.7	
기타 서비스	39.7	43.0	44.7	43.9	44.0	44.3	42.8	42.9	41.1	40.7	39.5	42.2	42.1	▲ 0.1	▲ 2.5	
전체	39.5	41.6	41.9	42.4	41.9	42.0	42.1	41.5	40.6	40.5	40.5	43.0	45.0	2.0	▲ 8.2	
기타	33.3	34.4	37.2	33.9	35.8	40.0	35.6	38.7	37.4	36.0	36.2	36.7	33.8	▲ 2.9	▲ 2.5	
격차 (10개업계별 『기타』 제외)	4.9	5.9	6.2	7.4	7.1	7.5	6.3	6.3	7.5	7.9	7.4	7.7	8.9	▲ 1.1	▲ 1.1	
중국진출	38.8	41.7	41.9	41.5	40.3	40.5	38.9	37.4	35.7	35.0	35.5	37.5	39.2	1.7	▲ 1.8	

※색깔없는 부분은 전월대비 개선 또는 증가, 황색은 전월대비 보합, 청색은 전월대비 악화되는 감소를 나타냄.

규모별: 「대기업」은 4개월 연속, 「중소기업」「소규모기업」은 3개월 연속 개선

- 「대기업」(42.9, 전월 대비 1.9 포인트 증가), 「중소기업」(38.9, 동 1.8 포인트 증가), 「소규모기업」(38.9, 동 2.0 포인트 증가) 모두 크게 개선되어, 모든 규모에서 지해 이전의 수준을 웃돌았다.
-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규모간 격차(4.0 포인트)는, 동 0.1 포인트 증가로 3개월 만에 확대되었다.

	12년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3년 1월	2월	전월 대비	재해 전 (2011년2월) 과 비교
대기업	38.7	40.8	41.2	40.8	40.3	40.8	40.3	39.5	38.2	38.4	38.7	41.0	42.9	1.9	6.0
중소기업	35.6	37.5	37.7	37.4	36.8	37.1	36.9	36.0	34.6	34.4	34.7	37.1	38.9	1.8	4.0
(그 중 소규모기업)	33.7	35.2	35.4	34.8	34.8	35.4	35.2	35.0	34.0	33.6	33.9	36.9	38.9	2.0	7.0
격차 (대기업-중소기업)	3.1	3.3	3.5	3.4	3.5	3.7	3.4	3.5	3.6	4.0	4.0	3.9	4.0		

※색깔없는 부분은 전월대비 개선 또는 증가, 황색은 전월대비 보합, 청색은 전월대비 악화 또는 감소를 나타냄.

지역별: 전체 10개 지역이 2개월 연속 모두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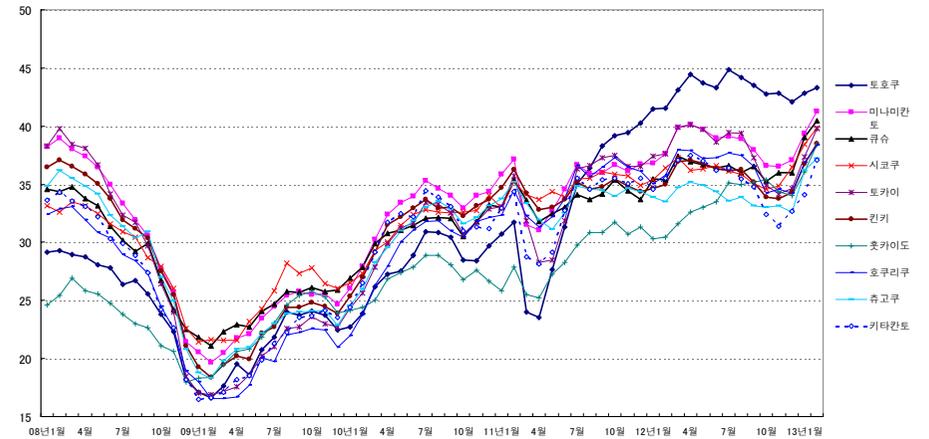
- 『키타칸토』 『토카이』 등 전체 10개 지역이 모두 개선되었다. 2개월 연속으로 전 지역이 개선된 것은 2010년 5월(5개월 연속) 이래로 2년 9개월 만이다.
- 『토카이』(39.8) ... 전월 대비 2.4 포인트 증가. 엔화하락으로 인해 생산이 증가경향을 보이는 자동차관련제조와 설비투자의 움직임이 활발하여 「기계제조」가 상향하는 것으로 인해 「제조」(38.5, 동 2.7 포인트 증가)가 개선되었다. 그리고 자동차 생산증가와 함께 관련한 자동차용품 등의 판매가 상향하고 있는 『소매』(40.2, 동 4.2 포인트 증가) 등, 10개 업계 중 8개 업계가 개선되어, 전체로는 3개월 연속 개선되었다.
- 『토호쿠』(43.3) ... 동 0.5 포인트 증가. 2개월 연속 개선하여, 전국 10개 지역 중, 18개월 연속 1위를 하였다. 부흥수요에 의한 『건설』(55.2, 동 1.6 포인트 증가)와 『부동산』(44.4, 동 6.5 포인트 증가)이 2개월 연속 개선된 것 외에, 『소매』 『서비스』 등 10개 업계 중 6개 업계가 개선되었다. 『건설』은 적설에 의한 공사정체가 있으나, 재해부흥에 의한 수요는 안정적이고, 특히 이전지역의 주택건축 등이 시작된 『부동산』의 상황이 현저해지고 있다.

현 별로는, 「미야기」(50.9, 동 0.8 포인트 증가)가 3개월 만에 개선되어, 2개월 연속으로 전국 2위가 되었다. 그리고 「후쿠시마」(제 3위: 46.3, 동 0.6 포인트 증가)와 「이와테」(제 4위: 45.4, 2.0 포인트 감소)도 높은 수준이 이어지는 등 『토호쿠』 6개 현 중 4개 현이 개선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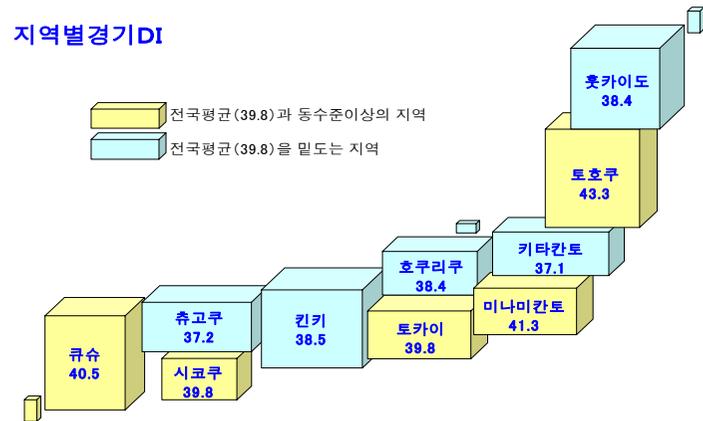
[제 1위는 「오кина와」(54.0)]

- 최고의 『토호쿠』와 최저의 『키타칸토』와 격차는 (6.2 포인트)는 동 2.5 포인트 감소로 3개월 연속 축소되었다.

지역별 그래프 (2008년 1월부터의 월별 추이)



지역별 경기DI



	12년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3년 1월	2월	전월 대비	재해 전 (2011년2월) 과 비교
홋카이도	30.4	31.6	32.6	33.0	33.5	35.1	35.0	35.2	35.3	34.3	34.0	36.1	38.4	2.3	10.5
토호쿠	41.5	43.1	44.4	43.7	43.3	44.9	44.2	43.5	42.7	42.8	42.1	42.8	43.3	0.5	11.6
키타칸토	35.5	37.1	37.5	37.0	36.2	36.4	35.5	34.8	32.4	31.4	32.7	34.1	37.1	3.0	2.7
미나미칸토	37.6	39.9	40.1	39.7	38.9	39.1	38.9	37.9	36.6	36.5	37.1	39.4	41.3	1.9	4.2
후쿠리쿠	35.8	38.0	37.9	37.2	37.3	37.7	37.5	36.5	34.2	34.6	34.2	36.9	38.4	1.5	3.9
토카이	37.6	39.9	40.1	39.7	38.7	39.4	39.3	37.3	34.9	34.2	34.6	37.4	39.8	2.4	4.1
킨키	35.0	36.9	37.1	36.8	36.3	36.2	35.2	33.9	33.8	34.3	36.7	38.5	38.5	1.8	2.2
쇼고쿠	33.5	34.7	35.2	34.9	34.3	33.5	33.9	33.1	33.0	33.1	32.6	36.2	37.2	1.0	2.0
시코쿠	36.4	37.3	36.2	36.3	36.6	36.1	35.9	35.1	34.6	34.8	36.4	38.4	39.8	1.4	4.6
규슈	35.4	37.4	36.9	36.7	36.4	36.6	36.0	36.5	35.2	36.0	36.0	39.0	40.5	1.5	5.1
격차	11.1	11.5	11.8	10.7	9.8	11.4	10.3	10.4	10.3	11.4	9.5	8.7	6.2		

※색깔없는 부분은 전월대비 개선 또는 증가, 황색은 전월대비 보합, 청색은 전월대비 악화 또는 감소를 나타냄.